

##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은 진                      김 영 윤<sup>†</sup>                      김 범 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자기에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에 성향이 공격성을 매개로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남자 451명과 여자 413명(총 864명)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격 척도, 정신병질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척도별 평균 비교와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자기에 성격척도의 하위요인과 정신병질, 공격성 점수와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에 하위요인들 중에서 과시욕, 특권의식 요인과 정신병질 경향의 관계에서 유의하였다는 결과를 성차와 연관 지어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자기에 성향, 정신병질, 공격성, 매개효과, 성차

\*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21-H00007).

† 교신저자 : 김영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youngy@kgu.ac.kr

범죄위험요인에 대한 개념화는 시대에 따라 혹은 장소, 문화에 따라 달리 정의되거나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리적 진단이나 부적응의 개념도 함께 진화되고 발전되어 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사회성이라는 특성으로 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해 왔으나 범죄의 수법이나 양상이 날로 흉포화되고 대범해짐으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고대에도 이러한 사회적·도덕적 부적격자들에 대한 개념화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신병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Cleckley(1976)가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기까지 다양한 명칭과 설명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2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병질자(sociopath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후 Cleckley(1976)와 Hare(1991)가 정신병질의 개념을 정의해 왔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정신병질에 대한 개념은 Cleckley(1976)와 Hare(1991)가 제시한 특성들 중에서 의견을 같이해온 특성들인, 피상적인 매력과 자기중심성, 속임수 및 거짓말의 사용, 죄책감의 부족과 공감능력에의 부족, 충동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정리된다(김재경, 2009; 이수정, 허재홍, 2004).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정신병질이나 정신병질자들(psychopaths)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분야 초기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온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수용하여 형사정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개념 타

당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후 반사회성과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인정되면서 정신병질의 원인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는 연구들로 분야를 넓혀갔다.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의 타당도를 증명하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군에서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의 차별화를 이루게 한 연구들은 Hare(1991)가 개발한 평가자가 채점하는 평가 도구로 Cleckley(1976)가 언급한 핵심적인 정신병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PCL(Psychopathy Checklist)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평가도구의 개발로 인해 정신병질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현재 사용되는 정신병질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후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을 이용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Hare, 1986, 1996; Hare & Craigen, 1974; Hare, Forth, & Stachan, 1992)과 다양한 실험과제를 이용한 연구들(Gu & Han, 2007; Lorenz & Newman, 2002; William, Harpur, & Hare, 1991)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정신병질자들의 정서나 인지과정에 대한 특성들을 밝히는 연구 분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연구 분야인 정신병질에 대한 특성과 원인론에 대한 연구들은 발달적 관점에서 기질, 유전적 소양, 부모 결핍, 학습과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Frick, 1998; Glene, Raine, Venables, & Mednick, 2007; Mednick, 1975). 이와 같은 정신병질에 대한 발달 심리적 접근은 원인론과 행동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와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곽금주, 김연수, 2008)에서 유용성을 지닐 것이다. Karpman(1941)은 정신병질

이 외견상 유사해 보이나 근본적으로 정신병리학적 토대가 다른 일차적 정신병질과 이차적 정신병질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차적 정신병질자들은 불안, 죄책감, 그리고 이전에 심리학적 문제를 겪었던 경험을 호소하지만 일차적 정신병질자들은 어떠한 전조현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타고난 기질로 규정하는 일차적 정신병질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정신병질자들이 치료에 대해 저항적이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치료적 개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Frick, Stickle, Dandreaux, Farrell, & Kimonis, 2005), 아동,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신병질자들에 대한 특성 파악과 분석 연구들이 행해져서 구체적으로 변화가능한 특성이나 행동 기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병질 성향과 관련이 되는 변인들로는 공감과 반사회성(김범준, 이은진, 김영운, 2009), 정서적 공감이나 관점 수용 등의 성격특성들(Mullins-Nelson, Salekin, & Leistico, 2006),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과의 관계(Hart & Hare, 1998)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기애는 개인적 가치 추구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현대인의 특성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병리적인 측면으로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정신병질은 자기중심성과 공감능력 부족이라는 면에서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연관성을 가진다.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진단준거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특성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성공과 권력이나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힘,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과도한 찬사와 특별대우 요구, 자신의 목적을 위한 타인 착취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함과 강한 질투심과 거만한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기애란 자신만만하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표현양상이 다른 자기애가 있을 수 있으며(Kohut, 1971), 방어의 형태에 따라 현상학적 특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Cooper, 2000; Kernberg 1975). 그러나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모두 그 기저에 특권의식과 착취하는 경향으로 드러나는 병리적 응대성과 취약한 자존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리된다(Hendin & Check, 1997)

많은 연구자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외현적인 것과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외현적이거나 내현적이라 정의되어진 자기애적 특성들이 사회공포증, 자존감, 대인관계 변인들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고해 왔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김지연, 1998; 윤성민, 신희천, 2007; 정남운, 2001). 자기애 성격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져 왔던 자기애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해왔고 부적응적 자기애보다는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를 특정한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Hickman, & Check, 1996; Raskins, Novacek, & Hogan, 1981),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정도를 구분하거나(백승혜, 현명호, 2008), 부적응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한수정, 1999). 권은미 등

(2009)은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공포증이라는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회공포증으로 발현한다는 기제를 밝혔다. 윤성민과 신희천(2007)은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를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자기애자들이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기 않기 위해 자기-초점적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회피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적 특성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적응적 양상들이 Cleckley (1976)가 정신병질자들의 변치 않는 본질이라고 지적한 자기중심성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정신병질자들은 깊은 정서 상태를 가장하지만 이는 흉내에 그칠 뿐이고, 이들에게 진실한 충심이나 따뜻한 열정은 낯선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정, 허재홍, 2004; William, Harpur, & Hare, 1991).

자기애적 특성이 정신병질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 관련성들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기애적 특성과 정신병질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정신병질에 대한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일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밝힌다면 자기애적 특성이 정신병질적 병리로 가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기애성향자들의 특성이 정신병질적 특징들로 연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들의 일부가 자기애성향과 유사함을 주목하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정신병질자 중의 몇몇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Ullrich, Farrington, Coid, 2008).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삶의 요소로 가정했던 안정된 지위나 부, 친밀한 관계들은 정신병질적 특성들에 관한 자신들의 가설을 지지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애 성향 중의 일부는 임상적 관찰에서 정신병질과의 유사성이 보고되어 왔으며(Hart & Hare, 1998), DSM-IV의 성격장애에 대한 표상과 삶의 성공 지표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기애 성격장애 증상점수들이 높은 보수나 사회경제적 지위, 자택 소유현황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llrich, Farrington, Coid, 2007).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병질 성향 내에 자기애적 특성이 일부 포함되거나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학자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왔음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애는 단일 증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므로 단기간에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것이다(권은미, 2006). 자기애와 관련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길주현과 오경자(2008)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성에 따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들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애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자기애의 외현적-내현적 특성뿐 아니라(백승혜, 현명호, 2008; 윤성민, 신희천, 2007), 외현적 자기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요인들로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비행과 같은 낮은 사회적 적응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애의 하위 특성들은 특권의식, 과시욕과 착취성이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을 자기애 중에서 부적응적 자기애로 분류하

였다(Barry, Chaplin, & Grafeman, 2006; Raskin & Terry, 1988)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여러 하위요인들 중에서 부적응적 자기에로 분류되어온 자기에의 하위요인들이 공격성과 정신병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기에 성향이 개념적인 면에서 정신병질과 관련이 있다면, 공격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에적 성향과 공격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실 연구(Bushman & Baumeister, 1998)와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Cann & Biaggio, 1989; Hart & Joubert, 1996; Papps & O'carroll, 1998)을 실시해 왔다. Papps와 O'corrol(1998)은 방어적인 자존감이 높은 집단, 즉 자기에 성향과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분노감 경험과 표현이 가장 강했다고 보고하였다. Bushman과 Baumeisters(1998)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 자기에 성향이 공격행동을 예언함을 보였고, Cann과 Biaggio(1989)는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감을 많이 경험하고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에 성향이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신병질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남녀를 비교한 성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Bjorkquist, Lagerspetzt, & Peltonen, 1992; Hyde, 1986).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타인에게 위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진화론적 가설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격성의 유형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범죄사건의 기록이나 사회심리학 실험연구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격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한 Hyde(1986)는 남성의 공격성 점수가 공격적 환상, 신체적 공격성, 모방적 공격성, 실험실 상황에서 타인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지 등 다양한 유형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병질이 빈도-의존적 선택에 의해 발현되고, 사회병질이나 정신병질자의 특성이 그 발현 기제에 따라 일차적, 이차적으로 구분되며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한 진화심리학자인 Mealey(1995)는 정신병질이 남성 집단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남녀 간에 공격성이나 정신병질의 차이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며 이를 본 연구에서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자기에와 공격성(서수균, 권석만, 2002; Bushman & Baumeister, 1998), 공격성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Hare, 1999)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해져 왔다. 그러나 자기에는 단일의 변인이라기보다 다양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에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도 하위요인별로 다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확인해 왔다. 이러한 관계들을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에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에와 정신병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에의 하부 특성들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와 성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적응적 자기에로 구분되는 특권의

식, 과시욕과 착취성이 공격성이나 정신병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공격성이 자기에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에 대한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자기에와 정신병질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신병질의 개념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신병질이 발현되는 기제를 밝히고 조기 개입을 하기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에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성향이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자기에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성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부적응적 자기에 성향은 공격성과 정신병질 성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공격성은 자기에와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및 절차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8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31명을 제외한 총 86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대상의 남학생 비율이 전체의 52.2%(451명), 여학생이 47.8%(413명)이며, 평균 연령이 남학생은 21.5세, 여학생은 20.4세였다.

### 도구

### 자기에 성향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수정(1999)이 변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Raskin과 Hall(1978)의 자기에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사용하였다. NPI는 DSM-III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우리나라에도 변안된 NPI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으며, 정남운(2001)은 1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알아본 연구에서 NPI의 문항들이 '자기에'라는 일반적 구성개념의 심리적, 행동적 현상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 NPI척도의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4요인 32문항의 점수와 40문항으로 된 원척도 점수와의 상관도 높았고 Raskin과 Terry(1988)의 기준도 만족시켰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안된 원문항 40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준화 과정에서 요인분석 결과 권위, 과시욕, 우월감, 특권의식, 착취성, 자기충족성과 허영심의 7개 하위요인이 나왔다(Raskin & Terry, 1988). 각 문항들은 자기에를 나타내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이 제시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A.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와 'B.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나 'A.나는 다른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와 'B.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형식의 쌍으로 제시된다. 점수의 범위는 0-40이며, 일부 문항들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합산하였다. 한수정(1999)은 반분신뢰도를 .85로 보고하였으며, Raskin과 Hall(1981)은 8주간의 동형 검

사 신뢰도를 .7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 공격성

대학생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 등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다. 개별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7번(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론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과 18번(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을 역산하여 네 가지 하위척도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점수가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 문항들은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비슷한 보기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전체 점수에 대해 .86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정신병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병질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487명의 대학생들을 비수감자 집단으로 선정하여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도구인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를 사용하였다. SRPS는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구성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Hare Psychopathy checklist(Harpur, Hare, & Hakisian, 1989)와 유사하다. 문항들은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Hare Psychopathy Checklist(Harpur, Hare, & Hakisian, 1989)에서 도출된 2요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일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고안되었고, 이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응답자의 태도를 고려하기 위해 7개의 문항들(10,12,14,15,16,19,23)은 역문항의 형태로 되어 역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질 특성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문항들은 Likert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진술문에 대해 ‘정말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은 SPSS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자기애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성향의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애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성향간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에 성향과 정신병질과의 관계 속에서 공격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Sobel(1982) 검증을 해 매개효과의 유의성(z점수)<sup>1)</sup>을 검증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 정신병질척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남녀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자기에 성향의 총점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861) = .63, ns$ ,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

충족성 점수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861) = 2.88, p < .01$ . 그리고 공격성 점수는 남학생들이 높았으며,  $t(861) = 2.49, p < .05$ , 정신병질 점수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861) = .68, ns$ . 각 척도별 점수의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인 자기충족성과 공격성 척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분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정신병질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측정 변인과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별에 따라 제시하였다(표 2와 표 3). 분석결과, 남학생들 집단에서 정신병질은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r = .220, p < .001$ ,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과시욕,  $r = .153, p < .01$ , 착취성,  $r = .115, p < .05$ , 특권의식  $r = .283, p < .001$ , 과

표 1. 성별 자기에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의 평균(표준편차)

변 인	남학생(N=451)	여학생(N=413)	전체(N=864)	성별(t)
자기에 성향	17.36 ( 6.53)	17.09 ( 6.09)	17.23 ( 6.32)	.63
권위	4.14 ( 2.09)	3.92 ( 2.03)	4.03 ( 2.06)	1.50
자기충족성	2.16 ( 1.41)	1.89 ( 1.37)	2.03 ( 1.40)	2.88**
우월감	2.50 ( 1.42)	2.60 ( 1.31)	2.55 ( 1.37)	-1.08
과시욕	2.76 ( 1.67)	2.93 ( 1.66)	2.84 ( 1.66)	-1.48
착취성	2.22 ( 1.19)	2.10 ( 1.11)	2.16 ( 1.15)	1.50
허영심	1.51 ( .99)	1.62 ( .99)	1.56 ( .99)	-1.76
특권의식	2.07 ( 1.24)	2.04 ( 1.22)	2.06 ( 1.23)	.27
공격성	42.39 ( 10.15)	40.73 ( 9.32)	41.59 ( 9.79)	2.49*
정신병질	56.49 ( 7.36)	56.16 ( 6.92)	56.33 ( 7.15)	.68

\* $p < .05$ , \*\* $p < .01$

1) z점수 +1.96이상이거나 -1.96이하이면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공격성은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권위,  $r = .190, p < .001$ , 과시욕,  $r = .208, p < .001$ , 착취성,  $r = .169, p < .001$ , 허영심,  $r = .138, p < .01$ , 특권의식,  $r = .163, p < .01$ ,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 집단에서도 공격성은 정신병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 = .367, p < .001$ . 자

표 2. 남학생들의 자기에, 공격성과 정신병질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 = 451)

변인	1	2	3	3①	3②	3③	3④	3⑤	3⑥
1. 정신병질									
2. 공격성	.220**								
3. 자기에	.080	.228**							
① 권위	-.020	.190**	.836**						
② 자기충족성	-.055	.086	.585**	.406**					
③ 우월감	-.078	.051	.629**	.406**	.229**				
④ 과시욕	.153**	.208**	.737**	.555**	.326**	.358**			
⑤ 착취성	.115*	.169**	.533**	.397**	.188**	.196**	.270**		
⑥ 허영심	-.012	.138**	.554**	.337**	.319**	.354**	.355**	.172**	
⑦ 특권의식	.283**	.163**	.524**	.382**	.117*	.265**	.261**	.231**	.125**

\*  $p < .05$ , \*\*  $p < .01$

표 3. 여학생들의 자기에, 공격성과 정신병질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 = 413)

변인	1	2	3	3①	3②	3③	3④	3⑤	3⑥
1. 정신병질									
2. 공격성	.367**								
3. 자기에	.071	.237**							
① 권위	.057	.276**	.803**						
② 자기충족성	-.113*	-.028	.523**	.300**					
③ 우월감	-.070	.039	.607**	.357**	.178**				
④ 과시욕	-.174**	.272**	.759**	.542**	.195**	.441**			
⑤ 착취성	-.017	.107*	.489**	.375**	.170**	.128**	.250**		
⑥ 허영심	-.043	-.027	.492**	.248**	.325**	.277**	.274**	.056	
⑦ 특권의식	.268**	.252**	.539**	.336**	.118*	.193**	.365**	.196**	.153**

\*  $p < .05$ , \*\*  $p < .01$

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기충족성,  $r = -.113, p < .05$ , 과시욕,  $r = -.174, p < .001$ , 특권의식  $r = .268, p < .001$ , 이 정신병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권위,  $r = .276, p < .001$ , 과시욕,  $r = .272, p < .001$ , 착취성,  $r = .107, p < .05$ , 특권의식,  $r = .252, p < .001$ , 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별로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공격성과 정신병질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정적이거나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자기에 하위요인들이 공격성과 정신병질에 대해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충족성,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 공격성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크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자기충족성과 과시욕이 정신병질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의식은 정신병질과 공격성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 자기애 성향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자기애가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모형에 의거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의  $\beta$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beta$  계수가 감소하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남녀로 구분하여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남자 집단에서는,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이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온 것은 특권의식,  $\beta = .14, t(449) = 3.03, p < .01$ , 과 과시욕의 영향력,  $\beta = .19, t(449) = 4.20, p < .001$ , 이었다. 자기애의 두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가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애의 다른 하위요인들은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선행조건인 매개변인인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권의식과 과시욕이라는 자기에 하위요인들이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변수인지 분석하였다. 특권의식,  $\beta = .28, t(449) = 36.24, p < .001$ , 과 과시욕,  $\beta = .15, t(449) = 3.27, p < .01$ , 은 두 번째 단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추가하여 특권의식과 과시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정신병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특권의식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표 4에서 공격성은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beta = .17, t(449) = 3.74, p < .001$ ,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특권의식,  $\beta = .26, t(449) = 5.74, p <$

표 4. 남자 대학생의 특권의식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beta$	$t$	$R^2$	$F$	
		B	SE					
1	독립→매개	특권 → 공격성	1.16	.38	.14	3.03**	.02	9.17**
2	독립→종속	특권 → 정신병질	1.68	.27	.28	<b>6.42***</b>	.08	38.96***
3	독립→종속	1) 특권 → 정신병질	1.54	.27	.26	5.74***	.11	27.03***
	매개→종속	2) 공격성 → 정신병질	.12	.03	.17	3.74***		

\*\*  $p < .01$ , \*\*\*  $p < .001$

표 5. 남자 대학생의 과시욕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beta$	$t$	$R^2$	$F$	
		B	SE					
1	독립→매개	과시욕 → 공격성	1.19	.28	.19	4.20***	.04	17.60***
2	독립→종속	과시욕 → 정신병질	.67	.21	.15	3.27**	.02	10.67**
3	독립→종속	1) 과시욕 → 정신병질	.52	.21	.12	2.50*	.06	13.12***
	매개→종속	2) 공격성 → 정신병질	.13	.03	.18	3.90***		

\*\*  $p < .01$ , \*\*\*  $p < .001$

.001,의 영향력도 감소,  $\beta = .28 \rightarrow \beta = .26$ , 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과시욕을 독립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표 5에서 공격성은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beta = .18$ ,  $t(449) = 3.90$ ,  $p < .001$ ,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과시욕,  $\beta = .12$ ,  $t(449) = 2.50$ ,  $p < .01$ ,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었으나( $\beta = .15 \rightarrow \beta = .12$ ),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에서 특권의식과 과시욕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방식으로 매

개효과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특권의식(표 4)과 과시욕(표 5)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베타계수의 감소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43, n = 450, p < .05$ ;  $Z = 3.03, n = 450, p < .001$ ). 독립변인인 특권의식과 과시욕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8.0%,  $F(1, 449) = 38.96, p < .001$ ,와 2.3%,  $F(1, 449) = 10.67, p < .01$ , 였으나 공격성이 투입되었을 때는 10.8%,  $F(2,448) = 27.03, p < .001$ ,과

5.5%,  $F(2,408) = 13.12, p < .001$ ,로 증가하여 설명량이 각각 2.8%, 3.2%가 증가하였다. 이는 남자 집단에서 공격성이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 특권의식과 과시욕이 정신병질과 가지는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 집단에서 자기에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신병질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표 6. 여자 대학생의 특권의식과 정신병질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beta$	$t$	$R^2$	$F$
		B	SE B				
1 독립→매개	특권 → 공격성	1.68	.37	.22	4.56***	.05	20.82***
2 독립→종속	특권 → 정신병질	1.53	.27	.27	5.64***	.07	31.82***
3							
독립→종속	1) 특권 → 정신병질	1.13	.26	.20	4.29***	.17	40.77***
매개→종속	2) 공격성→ 정신병질	.23	.03	.32	6.81***		

\*\*\*  $p < .001$

표 7. 여자대학생의 과시욕과 정신병질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beta$	$t$	$R^2$	$F$
		B	SE B				
1 독립→매개	과시욕 → 공격성	1.70	.27	.30	6.41***	.09	41.09***
2 독립→종속	과시욕 → 정신병질	.73	.20	.17	3.58***	.03	12.78***
3							
독립→종속	1) 과시욕 → 정신병질	.30	.20	.07	1.49	.13	31.46***
매개→종속	2) 공격성→ 정신병질	.25	.04	.34	6.98***		

\*\*  $p < .01$ , \*\*\*  $p < .001$

였다. 표 6과 표 7에 여자 집단에서 자기에의 하위요인인 특권의식과 과시욕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특권의식( $\beta = .22, t(409) = 4.56, p < .001$ )과 과시욕( $\beta = .30, t(409) = 6.41, p < .001$ )이었다. 이후 단계의 분석은 첫 단계 조건을 충족한 두 변인들에 대해 실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특권의식( $\beta = .27, t(409) = 5.64, p < .001$ )과 과시욕( $\beta = .17, t(449) = 3.58, p < .001$ )이 종속변인인 정신병질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공격성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beta = .32, t(408) = 3.74, p < .001$ ;  $\beta = .34, t(409) = 6.98, p < .001$ ), 독립변인인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감소하였으나(표 6:  $\beta = .27 \rightarrow \beta = .20$ ) 특권의식의 정신병질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beta = .20, t(408) = 4.29, p < .001$ ). 과시욕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beta = .17 \rightarrow \beta = .07$ ), 정신병질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7, t(408) = 1.49, ns$ ).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었으므로 공격성은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에서 특권의식은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며, 과시욕은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고 매개효과를 계산한 결과, 특권의식(표 6)과 과시욕(표 7)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베타 계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91, p < .001$ ;  $Z= 4.44, p < .001$ ). 독립변인인 특권의식과 과시욕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7.2%,  $F(1, 410) = 31.82, p < .001$ ,와 3%,  $F(1, 410) = 12.78, p < .001$ , 였으나 공격성이 투입되었을 때는 16.7%,  $F(2, 408) = 40.77, p < .001$ , 와 13.4%,  $F(2, 408) = 31.46, p < .001$ ,로 증가하여 설명량이 각각 9.5%, 10.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과시욕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남자집단은 그림 1과 2에, 여자집단은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남학생 집단에서 특권의식이나 과시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신병질 성향이 크다는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특권의식과 과시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신병질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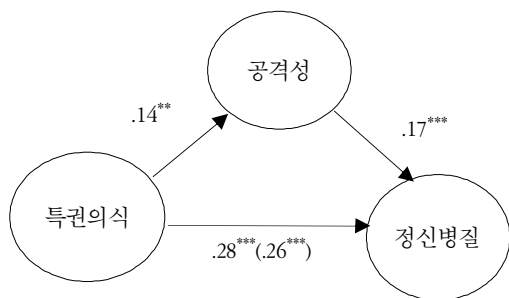


그림 1. 특권의식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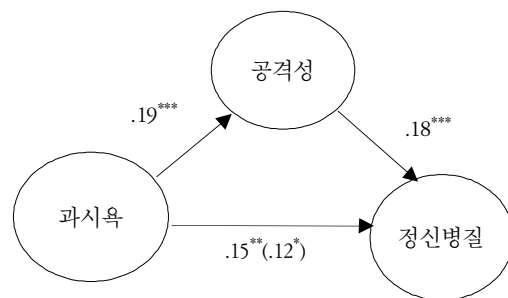


그림 2. 과시욕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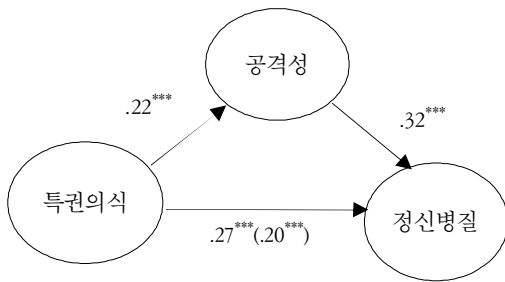


그림 3. 특권의식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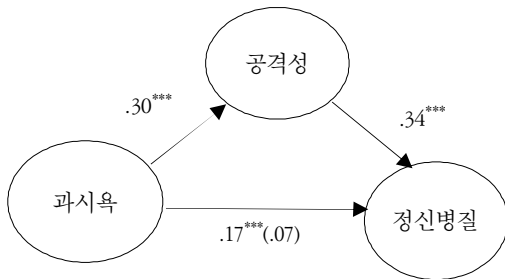


그림 4. 과시욕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여학생)

향이 클 것이며, 특히 그림 4는 과시욕과 정신병질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 매개변인임을 보여준다.

##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공격성, 정신병질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기에의 하위요인들이 정신병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공격성, 정신병

질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질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격성과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자기충족성은 남자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NPI가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으로 명명되는 4요인이 추출된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볼 때(정남운, 2001), 우리 사회가 가정하는 여성성보다는 남성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면에서 남성들의 자기에 성향 점수가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자기에의 특성상 하위요인별로 남녀가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김주현과 오경자(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과시와 허영심의 여자집단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기에 성향의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변인들 간의 모형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으나(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윤성민, 신희천, 2007), 본 연구를 통해 하위요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에 대한 성차를 연구한 김범준, 이은진과 김영운(2009)의 연구에서 여성의 정신병질 척도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병질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관점들이 제시되면서 척도들도 다양화되었고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따라 결과들이 변화하기도 한다. 현재는 척도가 개발되어지고 표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모아진다면 성차에 대한 가설들도 검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가 선

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병질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남녀 집단별로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에 총점과 정신병질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NPI가 측정하는 자기에의 일부요인들을 부적응적인 자기에로 분류했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면 본 연구에서의 자기에 총점은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자기에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정신병질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위요인별로 다시 상관을 보았을 때, 자기에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에서도 정신병질과 공격성에 모두 유의한 요인들은 남녀 집단 모두 과시와 특권의식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충족성,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 공격성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크지 않았고, 여학생들은 자기충족성과 과시욕이 정신병질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의식은 정신병질과 공격성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녀 모두 특권의식 요인이 정신병질과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유일한 하위요인이었다. 이는 자기에 요인 중에서 특권의식이 정신병질이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길주현과 오경자(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 집단에서는 과시 성향이 여학생집단에서는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는 결과와 관련이 되며, 과시란 타인보다 돋보이고 싶은 경향을 의미하며, 특권의식은 권력이나 지배에 대한 욕구에 가까운 것으로

(Raskin & Terry, 1988), 특권의식, 과시와 착취성을 부적응적 자기에로 구분했던 연구결과(Barry, Chaplin, & Grafeman, 2006; Emmons, 1984)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에 하위요인들은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남녀 모두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공격성이나 정신병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길주현, 오경자, 2008)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남자집단에서는 과시가 공격성을 예언하고 여자집단에서는 특권의식이 공격성을 예언하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셋째, 자기에 성향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심리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특권의식과 과시라는 자기에 하위요인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정신병질 경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이 함께 높은 집단이 분노감을 덜 억제하고 자기주장적인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결과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기에 성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특권의식이나 과시욕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며 이는 정신병질자들이 가지는 사회 부적응의 특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에의 부적응적 특징들이 정신병질로 발현되는 기제에는

분노감이나 언어적인 공격성을 포함하는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질, 자기에과 공격성과의 상관이나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정신병질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했다는 것이다. 특정한 심리적 변인의 구조나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오랜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나 정신병질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개념이 분리되고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경우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관연구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에 성향의 하위요인들이 정신병질에 공격성을 매개로 영향을 준다는 기제를 밝혀냄으로써 정신병질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자기에 성향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길주현, 오경자, 2008)와 유사하게 과시나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공격성을 통해 자기에 하위요인 일부가 정신병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정신병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기에의 일부 특성이 연관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병질과 자기에 성향의 일부 특성들이 공유됨에서 유추하여, 자기에적 성격장애 특성이 사회적인 성공과 연계되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정신병질 특성을 지닌 이들에게서도 살펴보려했던 연구에서 Ullrich 등(2008)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성공한 자기에적 성향자들이 있었듯이 성공한 정신병질적 성향자들이 있을 거라는 본인들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결과를 해석하며, 자기에 속에 두 가지 수준

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낮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수준1은 공감능력 부족, 우울, 편집성향과 부인하는 성향이며, 보다 적응적인 수준2의 자기에는 선택적 공감, 살피고 부단히 경계하는 편집적 인지스타일과 죄책감 있는 우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신병질에도 이질적인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적인 요인들과 결합하는 경우 정신병질적 특성의 발현이 사회적으로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자신들의 이전 연구에서 언급하였다(Ullrich et al., 2007).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에 성향 중에서 특권의식과 과시욕이 공격성을 매개로 정신병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성인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진다. 보다 다양한 연령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에에 대한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로의 구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외현적 자기에 척도로 분류되어온 NPI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과의 관계를 공격성과 연관지어 살펴려는 연구목적에 따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자기에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한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에 변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공격성의 세부 요인과의 관계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격성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들이 남성의 공격성에



집중하여 여성들이 가진 다른 유형의 공격성에 대해 간과해 왔다는 결과들을 보고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격성이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어 왔음을 보이는 것이며 특히 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어 왔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공격성에 대해서 보다 세분화된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하위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연구에서는 잠재 변인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정변인들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모형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후속으로 계획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신병질 변인에 대한 다양한 기제를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모형 검증 연구들은 정신병질의 개념을 명료화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범죄나 병리적인 행동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 뿐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해 나가는 현장의 요구에도 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정신병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제들이 밝혀져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969-990.

곽금주, 김연수 (2008). 발달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71-89.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길주현, 오경자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김범준, 이은진, 김영운 (2009).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19-239.

김재경 (2006).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의 타당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지연 (1998).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426.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 심리치료, 19(4), 967-982.
- 이수정,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39-77.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ry, C. T., Chaplin, W. F., & Grafeman, S. J. (2006). Aggression following performance feedback: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feedback valence, and comparative standar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77-187.
- Bjorkqvist, K., Lagerspetz, K. M. J.,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5<sup>th</sup> Ed.)*, St. Louis, MO: Mosby.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light, J. I., & Forth, A. E. (2007). Instrumentally violent youths: The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empathy, and attach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6), 739-751.
- Frick, P. J. (1998).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Applying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y to children.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161-18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Frick, P. J., Stickle, T. R., Dandreaux, D. M.,

- Farrell, J. M., & Kimonis, E. R. (2005).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Predicting the Severity and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71-487
- Forouzan, E., & Cooke, D. J. (2005). Figuring out la femme fatale: Conceptual and assessment issues concerning psychopathy in femal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3, 765-778.
- Fowles, D. C. (1980). The three arousal: Implications of Gray's two factor learning theory for heart rate, electronic activity, and psychopathy. *Psychophysiology*, 17, 87-104.
- Glenne, A. L., Raine, A., Venables, P. H., & Mednick, S. A. (2007). Early temperamental and psychophysiological precursors of adult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3), 508-518.
-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 X., & Han, S. (2007). Attention and reality constraints on the neural processes of empathy for pain. *NeuroImage*, 36, 256-267.
- Hare, R. D. (198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1999).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Psychiatric Quarterly*, 70(3), 181- 197.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Newberry Park, CA: Sage.
- Harpur, T. J., Hare, R. D., & Hakstian, A. R. (1989). Two-factor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construct validity and assessment im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6-17.
- Hart, S., & Hare, R. D. (1998).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y and narcissism: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In E. F. Ronningstam(Ed.), *Disorders of narcissism: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pp. 415-4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art, P. H.,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endin, H. M., & Chec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H. M., & Check, J. M. (1996).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Hyde, J. S. (1986).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J. S. Hyde & M. C. Linn (Eds.), *The psychology of gender: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arpman, B. (1941). Perversions as neuroses(the paraphiliac neuroses): Their relation to psychopathy and criminality. *Journal of Criminal Psychopathology*, 3, 180-19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venson, R. M., Kiehl, A. K., & Fitzpatrick, M. C.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158.
- Lilienfeld, S. O. (2005). *Psychopathic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Lilienfeld, S. O. & Widows, M. R. (2005).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Lilienfeld, S. O., & Andrews, B. P. (1996). Develop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Noncriminal Populations, *Th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3), 488-524.
- Lorenz, A. R., & Newman, J. P.(2002). Deficient response modulation and emotion processing in low anxious Caucasian psychopathic offenders: Results from a lexical decision task. *Emotion*, 2, 91-104.
- Mahmut, M. K., Homewood, J., & Stevenson, R. J. (2007). The characteristics of non-criminals with high psychopathy traits: Are they similar to criminal psychopa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479-692.
- Mealey, L.(1995). The sociobiology of sociopathy: An integrated evolutionary model.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 523-572.
- Mednick, S. A. (1975). Autonomic nervous system recovery and psychopathology. *Scandinavia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4, 55-68
- Mullins-Nelson, J. L., Salekin, R. T.,& Leistico, A. R. (2006). Psychopathy,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in a community sampl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psychopath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5, 133-149.
- Papps, B. P., & O'carro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for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8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Ullrich, S., Farrington, D. P., & Coid, J. W. (2007). Dimensions of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life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 659-665.
- Ullrich, S., Farrington, D. P., & Coid, J. W. (2008).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and life succ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162-1171.
- William, S., Harpur, T. J., & Hare, R. D. (1991).

이은진 · 김영윤 · 김범준 /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normal processing of affective words by  
psychopaths. *Psychophysiology*, 28, 260-273.

1 차원고접수 : 2010. 5. 10.

심사통과접수 : 2010. 9. 15.

최종원고접수 : 2010. 9. 20.

##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sychopathy: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Eunjin Lee**

**Young-Youn Kim**

**Beom Jun Kim**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ggression mediates the effects of seven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on psychopathy. It hypothesized that som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could affect aggression that, in turn, contributes to psychopathy.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864 college students (451 males and 413 females). The participants completed an assessment battery consisting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Aggression Questionnaire(AQ), and Self-Reported Psychopathy Scale(SRPS). According to the results,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aggression variables affected psychopathy, and aggression predicted students' psychopathy. The effects of students' narcissistic personality on psychopathy were partly mediated by ag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partly supported the hypothesis, and were discussed on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 among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ggression, and psychopath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narcissistic personality, psychopathy, aggression, mediating effects. gender differences*